

늘푸른숲

2024. 11



제425호 | 발행일 2024년 11월 3일 |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신영철A | 교회 표어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Tel. 053) 667 8800 Fax. 053) 667 8998 | <http://pomo.net>



생활예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생활예배란 ‘우리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과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현장을 통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 자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중에서〉”

사랑의 쿠션



이지훈 담임목사

조신영 작가는 자신의 책 <쿠션>에서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들이 있는데 그 자극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자극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극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이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쿠션’입니다. 저자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쿠션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반응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쿠션은 인격이나 체면 또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쿠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자극들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자극에도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외부의 자극이 있고 막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자극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외부의 자극들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며 삶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을 열며

곡식이 무르익었다. 추수의 계절이다.
높고 푸른 가을의 청명함과 온 땅의 풍성함을 보며
마음이 울컥 쏟아져 내리는 건 감사함 때문일까.

이렇게나 풍성히 주셨는데 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것을 나누기는커녕,
여전히 내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한 자신을 보며 올라오는 씁쓸함, 그 서글픔 때문일까.
주신 은혜의 풍성함!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색함, 그로 인한 부끄럼 때문일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시편 90:3)

11월은 꽃을 한껏 피우며 드러냈던 화려함의 옷을 벗고,
벗겨진 옷 안에 추수의 열매를 남긴 채 처음의 자리, 흙으로 돌아가는 계절이다.

추수란 무엇일까.
포장지로 한껏 꾸미며 그럴듯한 모양새로 그새 교만의 옷을 입었던 인간이
그 모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추수가 아닐까.
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간의 인간 됨을 처절히 깨닫는 것 말이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길 선상에서
나의 거름이 누군가의 씨앗으로 남겨지는 것이 진정한 추수임을 아는 것 또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12)

그래서 오늘 더 기도합니다.
어찌 안 되는 연약함, 여전히 꿈틀대는 자아의 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어제보다는 넉넉한 가슴이 되길.
먼저 내미는 파스한 손길이 되길.
빛속에 서 있는 그와 함께 비를 맞으며 품어주는 사랑이 되길.

그래서 오늘도 제 귀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눈을 주세요.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세요.

• 허윤정 집사(교회보팀)

2024 November | Vol. 425

CONTENTS

02 포토에세이

03 목양칼럼

04 11월을 열며 _ 허윤정 집사

05 목차

06 행사 1 | 임직감사예배 -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08 행사 2 | 이웃과 함께 하는 가을 바자회 _ 교회보팀

12 행사 3 | 새가족 만남의 날 _ 장성미 이래권사, 한은정 집사

14 주일학교 | 구원의 기쁨 _ 김지애 학생

15 청년부 | 월삭, 예배의 새로운 시작 _ 송채린 청년

16 나의 한 구절 | 메이슨 크리스틴

18 봉사팀 탐방 |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_ 교회보팀

20 공감의 장 | 천국 가신 나의 어머님께... _ 양지은 집사

22 Book | 생활 예배 / 내 삶의 주인 _ 김규섭 목사

24 행사단신 | 10월의 범어

26 범어 '창(窓)' | 그깃 공놀이 _ 김보현 집사

범어범어

27 범어동정 / 행사 안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 1:25)

10월 26일 토요일 2시, 범어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실 분들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임직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분의 장로 취임(황동하), 여섯 분의 장로 장립(류영하, 정정호, 박철, 김호규, 신주철, 임병하), 여섯 분의 집사 장립(김태형, 박동진A, 안권주, 노광우, 김흥년, 박순만A), 일곱 분의 권사 취임(권정애, 권명숙B, 박효천, 정명심, 장은조, 조성희B, 김은정A)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이지훈 담임목사님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먼저 장로의 길을 걸었던 김기운 은퇴장로님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처럼 행군 나팔 소리에 맞추어 주의 호령을 따라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선한 싸움 싸우겠다 다짐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후에 디모데전서 6장 11~12절을 본문으로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인 11~12절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전체를 살피우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하는 것과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섬세하게 설명해주심으로 임직자들의 역할과 사명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임직자 서약과 세워진 임직자를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겠다는 교우 서약이 있었습니다. 장로 장립 받는 분과 집사 장립받는 분들을 위한 안수기도와 권사 취임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지훈 목사님께서 안수받고 취임하신 분들을 범어교회 장로, 집사, 권사됨을 공포하셨습니다. 임직자를 대표하여 류영하 장로님이 임직자 선서에 맞추어 모든 임직자들이 공회 앞에 임직자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지고 축송, 예물증정 순서가 이어졌는데 무엇보다 장영일 원로목사님의 권면이 임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당부 같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 후 후배 목사들에게 했다는 “예수 잘 믿으시오!”라는 예화가 맘 깊이 새겨졌습니다.



임직받으시는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겸손과 섬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정리 교회보팀





이웃과 함께 하는 가을 바자회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라는 표어로 올해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이웃과 함께 하는 가을 바자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다. 몇 주 전부터 바자회를 위해 금요기도회 때마다 전교인이 함께 기도했는데, 비가 오면 어쩌나 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야외 주차장 하늘을 가득 메운 만국기와 교회 입구의 풍선 아트, 부스별로 준비된 여러 음식과 물품, 봉사자와 지역주민, 아이들로 인해 분주하고 활기찬 분위기 앞에 나의 걱정은 온 데 간 데 없다.

각 기관별로 준비한 추어탕, 비빔밥, 반찬류, 김밥, 어묵, 떡볶이, 전, 순대, 봉어빵, 감보디아 음식 눕빵샷, 팝콘 등은 우리의 입을 사로잡았다. 또 청년부에서 준비한 달고나, 페이스페인팅, 보석 십자수 등의 체험 한마당과 인형, 키팅 등은 우리 꼬마 친구들의 눈길과 손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협력교회의 꿀, 장아찌, 청도반시 등과 굿월 스토어의 의류, 신발, 식품 등은 이웃 주민과 어르신들의 두 손을 가득 채워 주었다.

12시가 되자 추어탕은 동이 났고, 오후 2시가 넘어가자 비빔밥도 다 팔렸다. 오전의 후텁지근한 날씨 때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찐빵이 다 안 팔릴까봐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갑자기 웬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지... 잠시 퍼붓고 그치더니 금새 날씨가 선선해진다. 결국 서늘해진 날씨 덕에 어묵 1300개, 찐빵 1200개가 다 팔렸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루 동안의 덥고, 비 오고, 시원한 날씨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가을은 익어가고 있었다. 입시 설명회를 시작으로 키즈 페스티벌, 야시장, 가을 바자회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걸어가
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늘 동행해 주셨다. 네 번
의 프로젝트가 이웃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작은 몸
부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경하여 밭에 뿌려
진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익어져가
는 가을에 네 번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한 자락이라도 닮아있기를, 그래서 곁에 물
든 단풍처럼 물들어 있기를 기도해본다.

•김현성 집사(교회보팀)

봉사자 인터뷰 | 캄보디아팀 : 잔디(한국명 손정은),
솔리압(한국명 김민주), 스레이 몸(한국명 김영선)

**Q.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
이 들었나요?**

A. 목사님들과 교회 식구들에게 캄보디아 음식을
많이 알게 해 주고 싶었어요.

Q. 바자회를 준비하며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A. 잘할 수 있을까 부담은 되었지만, 교회 집사님들
과 함께 장도 보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
어요. 그리고 이 음식이 혼자 해서 먹기는 힘든 음
식인데, 고향 음식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도와주어
서 함께 대량으로 준비하고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어

서 좋았어요.

**Q. 이번 바자회에서 봉사자로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A. 교회집사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봉사할 수 있어
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어요. 그리고 많은 분이 현지 음식이라
고 궁금해하고 사 주셔서 즐거웠어요.

Q. 바자회를 준비하며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오랜만에 캄보디아 친구, 언니, 동생과 재료를 준
비하며 즐겁게 만들어서 힘든 줄 몰랐어요. 짐이 무
거워서 옮기는 데 힘이 들었지만, 교회 언니들이 많
이 도와주었어요.

비빔밥을 준비하며 믿지 않는 이웃, 주민, 가족들
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어 유익했습니다. 음식과 물
건들이 싸고 좋았고 봉사하는 교회 식구들이 봉사
하면서 즐거운 표정이 기억에 남네요. (성사모 안
혜주 집사)

이번 바자회가 올해의 표어와 잘 맞다고 생각했
고, 교회 주변의 이웃분들과 함께 하는 바자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어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맡은 일
(풍선아치와 풍선장식)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 감사



했습니다. 작은 섬김이 바자회를 알릴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 뿌듯했네요. (바울청년회 한정민 집사)

바자회가 교회에서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어 감사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초대했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마음이 생겨가는 가운데 함께 음식을 나누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사모 김현주 집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제가 굳이 이 큰 교회에 일꾼도 많을 텐데 봉사자로 섬길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바울청년회 이유진 집사)

바자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섬기고 지역주민들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함께 예배드릴 날을 상상해 보니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바자회 홍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로 방문한 것이 올해 네 번째인데,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작은 열매가 보인 것 같았습니다. 봉어빵을 통해 성도님, 주민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힘든 것보다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곳은 날씨에도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과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윤영섭 목사)

참여자 인터뷰 | 데릭 성도(Derek)

Q. 바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A. I found out about the bazaar during the announcements in church.(교회에서 주보의 광고





를 통해 바자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Q.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A. I thought it was a great idea. I think the church should have more events like this and advertise to the entire community.(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더 많이 하고 지역사회 전체에 광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오늘 바자회를 둘러보며 가장 좋았던 점, 또는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I enjoyed shopping for clothes and found a nice shirt. I also bought some 떡볶이 and 봉어빵. It was a great event and everyone there was friendly and helpful. I will go again next time.(옷 쇼핑을 즐기다가 좋은 셔츠를 찾았습니다. 떡볶이와 봉어빵도 샀습니다. 정말 좋은 행사였고 모두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갈 거예요.)

손녀 따라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 주시니 좋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옷, 추어탕, 김밥, 먹는 것들이 가격이 다 싸고 좋아요. (범어동 60대 주민)

성악 문화 강좌에 왔다가 들르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봉어빵을 너무 잘 구우시는데요?^^ 친구, 손주들 주려고 키텐, 인형 등 잔뜩 샀어요. 다 선물로 줄



건데 너무 좋아요. (60대 주민)

동생이 비빔밥 봉사위원으로 초청해서 오게 되었는데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이라 기분이 좋아지네요. 음식이 신선하고 맛나고 특히 동생이 수고해 준 비빔밥에 찜 감동을 느껴요. 따뜻한 교인들과의 친목이 인상 깊었어요. (포항 50대 주민)

교회분들이 정성들여 바자회 준비를 하신 것 같았고 음식들도 모두 맛있었어요. 다들 친절하셨고, 즐거워 보였어요.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졌지만 동요됨 없이 각자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수성동1가 50대 주민)

따뜻한 미소의 봉사자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며 반겨주었고 다양한 부스들과 범어교회 가을 바자회 덕분에 가을이 풍성하고 간만에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었네요.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적은 돈으로 좋은 상품과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기서 구입한 먹거리로 식구들과 행복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고 저를 초대해 주신 채** 언니께 감사사를 전합니다. (만촌동 40대 주민)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함으로 가을이 짙어지는 시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 새가족을 위한 환영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뜻을 정하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한 친교의 시간을 통해 범어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새가족 분들이 믿음의 터를 굳건히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그 충만하심을 한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겔 36:26)

새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며 범어교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정들었던 교회를 떠날 때는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어교회를 다닌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교회에 등록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목자님과 사랑방 식구들을 만나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랑방 식구들과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애쓰시는 목자님을 보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제 마음 한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예배의 감격도 영혼을 향한 갈망도 점점 무뎌지는 게 느껴졌는데, 새가족 만남의 날을 통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보며 저도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꿈꿔봅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저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 장성미 이래권사(성사모)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7년여의 아부다비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을 해야만 했다. 그곳이 좋았기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다. 하지만 그게 어디 내 힘으로 되던가. 귀임 한 달 전 뜻하지 않게 대구로 오게 되었다. 나는 대구에 살아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한국인데 어딘들 못 살겠냐며 자신만만하게, 무언가에 이끌린 듯 대구에 왔으나 대구는 생각보다 낯설고 외로웠다. 마음은 여전히 아부다비에 있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예배드릴 교회를 찾던 중 범어교회에 오게 되었다. 첫 예배 후 여기서다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쉽게 등록하지 못했다.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힘들어졌다. 계속 방황했고 눈물만 났다. 내 믿음도, 아이들도 흔들리는 게 보여서 교회등록을 했다. 등록 후 목사님의 기도예 정신이 확 들었다. **‘이곳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갖길 원한다고’**.

그렇다. 나는 아부다비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긴 터널에서 이끌어주시고 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허우적거리던 나를 건져내셔서 아부다비 땅으로 이끄시고 그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 그런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내 모습을 보았다. 말씀도, 기도도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새가족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건네셨고 그 책을 읽으며 점점 회복이 되었다. 치유가 되었다. 이후 양육학교를 들으며 성경 공부도 하고, 어머니 기도회에도 가고 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마음속으로 아뢰기만 했는데 응답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그분은 내가 눌러앉아 교만해지길 바라시지 않는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길 바라신다. 연약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장을 원하신다. **범어교회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갖길 원한다.**

• 한은정 집사(디모데청년회)



구원의 기쁨

지난 10월 20일, 범어교회 중등부에서 전도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도축제는 단순히 간식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장 먼저, 새로운 친구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건넨 뒤, 중등부의 찬양팀인 아가포세의 축복 찬양들로 서로에게 따스한 축복을 했습니다. 새로 교회에 나와 아직 어색한 친구들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전도 축제에는 새로 교회에 나아온 친구들을 축하하기 위해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C:ON 문화전도팀, 신나는 음악과 댄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PEMTREE 팀이 공연을 준비해주셨습니다. C:ON 팀은 교회와 찬송들이 낯선 친구들을 위해 대중적인 노래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PEMTREE 팀도 신나는 찬송에 맞추어 댄스를 통해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멋진 공연을 보고 난 뒤에는 중등부의 최상용 강도사님께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는 모든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 교회에 나아온 친구들, 원래 교회에 나오던 친구들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믿음이 없던, 확실치 않던 친구들과 다함께 은혜받을 수 있어 귀한 축제였습니다. 이런 전도 축제를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이 더 굳세진 것 같아서 기쁜 하루였습니다.

• 김지애 학생(중등부)

월삭, 예배의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새벽이슬 청년부 51대 송채린입니다. 청년부는 매달 초 청년예배가 끝난 후 월삭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월삭'이라는 단어 뜻에 맞게 매달 처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기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첫 청년부 예배와 월삭기도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앞두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월삭기도회를 통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월삭기도회 팀에 소속되기 전 참석했던 예배들은 한 달을 살아가는 데 큰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달을 말씀으로 시작하며 기도회 때 선포된 말씀을 그달의 목표로 삼을 수 있어 도전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무언가 해소되는 느낌 또한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전이 되고 간절했던 것이 해소된 이후, 마침곡인 '예수님의 은혜와'를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과 그분의 따스함을 품에 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회 팀에 소속된 후에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주 모여 기도회 나눔, 신앙 나눔, 삶 나눔을 하며 단순히 찬양만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 나아온 예배자들임을, 그리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지,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서로를 보며 느끼고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가 더욱 세워져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월삭을 통해 소중한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뜨거운 기도와 열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월삭에 참여하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는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고백하고자 하는 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자 등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예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은혜와 경험들이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 송채린 청년(청년1부)

나의 한 구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란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다 / 홍민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과연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하루 24시간 중
몇 분 몇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 죽게 되고 아무런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메이슨 크리스틴 (고등부)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교회에 속한 봉사팀을 탐방하고, 섬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코너입니다. 스무 번째로 호산나 찬양팀을 방문하였습니다.

Q. 호산나 찬양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팀별로 요일이나 예배가 정해져 있나요?

A. 호산나 찬양팀은 크게 싱어와 악기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부, 2부, 3부,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로 나누어 섬기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많게는 50대 권사님부터 젊은 청년들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Q. 호산나 찬양팀을 시작하시게 된 각자의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A1. 저는 금요기도회 싱어로 섬기게 되면 금요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겠다 싶어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내와 온 가족들이 금요기도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A2.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 토요일 찬양 집회와 금요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커져 가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즈음에 사역하시던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3. 저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이 찬양대로 섬기셨고 저 또한 유년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까지 찬양팀으로 섬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산나 찬양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Q. 호산나 찬양팀을 섬기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나요?

A1. 주일은 괜찮지만, 금요일엔 회사일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예배 참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출근할 때부터 단복을 입고 출근했는데 야근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금요기도회 참석을 못하게 되니 맘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A2.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이 금요기도회에 많이 참석하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니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Q. 섬기시는 분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A1. 저는 찬송가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후렴부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 부분이 제 삶의 고백이자 다짐입니다.

A2. 첫 직장인 합천에 있어서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찬양 앨범을 많이 듣고 다녔습

니다. 시기적으로 첫 직장예다가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때 출퇴근하며 듣던 곡 중에 제이어스의 Born Again(본어게인)이 정말 힘이 되는 곡이었습니다.

A3. 저는 ‘주는 완전합니다’를 꼽고 싶네요. 매일 힘들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며 힘을 내게 되니까요.



Q. 호산나 찬양팀을 섬기며 경험하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1. 찬양을 부르다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이신데도 은혜로 눈물을 흘리시거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싶어 은혜가 됩니다.

A2. 처음에 저의 아내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까운 분의 죽음이 저와 아내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을 목도하면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A3. 앞에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가사와 곡조에 신경이 쓰여 찬양의 내용에 집중이 안 될 때가 간혹 있어요. 또 회중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일 때도 있구요. 물론 음악적인 요소도 완벽하게 중요해야겠지만, 찬양 자체로 은혜가 될 때는 회중의 시선도 음악적인 요소도 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너무 좋아요!

Q. 성도님들께 부탁하시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1. 범어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오며 성장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여러 이유로 지역에 남아있기가 어렵고,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자리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며 결혼과 육아, 집안일, 직장 생활, 내 집 마련 등의 모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신앙인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잘 이어져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A2. 저는 호산나 찬양팀이 온 성도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돕는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예배도 온전해지니, 특별히 호산나 찬양팀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3. 수요예배에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싶으신 성도님이 계시면 김규섭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을 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리 교회보팀

천국 가신 나의 어머니께...

어머님을 처음 뵈었던 건 1992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뵈 그 날부터 어머니가 좋았습니다. 막 내한테 밥해준 거 외에는 해준 게 없다고 연신 말씀하시던, 너무 겸손하시고 정이 많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교회 식당에서 연신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기쁨으로 봉사하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배 후 식당으로 내려가면 주방에서 늘 환하게 웃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시고 밥 먹고 가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지요. 제가 힘들었을 때, 어머니는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 오롯이 저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하는 말들을 어머니 앞에서는 마음껏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큰일 앞에서는 저의 편에서 힘이 되어주시며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던 어머니로 인해 못난 며느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사랑하는 친정아버지를 별안간 훌쩍 떠나보내고, 8월 사랑하는 둘째 형님과 갑작스런 이별 후 ‘부모님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아야지.’라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핑계들로 또 이렇게 후회 가득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작별하게 되었네요. 제가 말할 때 ‘그게 그케’ 하시며 늘 공감해 주시며 맛장구쳐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늘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큰 감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 동석이와 혜주의 엄마가 된 것, 저희 부모님의 딸로 태어난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바로 어머니의 며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신다던 어머니. 험난하고 힘들었던 어머니의 인생 여정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냐고 여쭙더니 아버님께서 편찮으셔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것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깊은 사랑과 오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육신의 어머니를 볼 순 없지만 늘 그리워하며 가슴에 담고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이 찬송부르며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저희들도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열매들을 다 볼 수 없을지라도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고통과 아픔 없는 천국에서는 편안히 쉬시고 늘 그러하셨듯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어머니가 저희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께
• 양지은 집사(예사모)



생활 예배 / 내 삶의 주인

책을 통해 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기획한 코너입니다. 올해는 송인규 교수의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란 책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살피고 예전의 깊은 뜻을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합니다. 이번 호는 “생활 예배”를 다룹니다.



기독교가 살아 있는 종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려면,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예배에 꾸준히 참여해야 하고, 또 예배 이후의 삶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 실천의 의지가 배어나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 의식과 삶의 현장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동일한 예배 정신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생활 예배’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 예배란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과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현장을 통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 자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활 예배의 성경적 근거

생활 예배라는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생활 예배의 개념만큼은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근접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22-24절이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몸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 예배임을 가르쳐준다. 여기서 ‘몸’이란 인간 전체를 가리킨다. 즉,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신약적 제사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고, 또 몸이 개입되는 모든 일, 행동, 활동은 영적 예배**가 된다.

또 골로새서 3장 22-24절 말씀은 우리가 수행하는 일상사조차도 예배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22절 ‘모든 일’ 혹은 23절 ‘무슨 일’은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일을 말하고 있다. 보잘 것 없는 일, 즉 욕탕에 물 채우기, 음식 나르기, 주인의 잔심부름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22절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이든 올바른 마음 자세가 동반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 맡겨진 일을 한다면 그것이 비천한 일이라도 신앙적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24절 결국 그러한 태도는 주님께 상을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섬기다’는 동사가 광의적 예배 개념을 함의하고 있다. 결국 종들이 세상적이고 비천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마음 자세만 견지한다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생활 예배를 향하여

이토록 생활 예배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식 예배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식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신앙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죄악을 포함한 일상생활은 신앙적 가치를 보유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즉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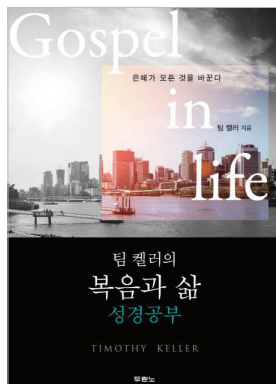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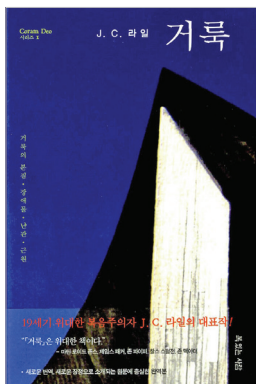
하지만 자신은 깨끗이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구조악의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면한 악에 대한 인식’ ‘자신의 한계 인정’ ‘장기적 안목에서의 변화에 대한 열망’ 등을 가지고 그 생활 영역에 남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와 그의 일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 박차고 일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과 주인으로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우리가 실존해 있는 모든 영역(예배당이나 삶의 터전이나)은 거룩한 예배 처소로 찬란히 변화될 것이다.

• 김규섭 목사

생각하는 질문

- 당신에게 예배 의식과 삶의 현장 가운데 괴리는 무엇이 있나요?
- 삶의 예배로 나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김규섭 목사가 추천하는 관련 도서

『거룩』 (J. C. 라일, 생명의 말씀사)

『팀켈러의 복음과 삶』 (팀 켈러, 두란노)

10월의 범위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새터민 야외 나들이 행사 | 10월 5일(토)에는 사회봉사위원회 주관으로 '새터민 야외나들이' 행사가 약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해공원, 매명유수지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목자 야유회 | 10월 12일(토) 오전 8시 40분 제자훈련위원회 주관으로 목자 야유회가 약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기장군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경로잔치 야유회 | 10월 24일(목)에는 실버위원회 주관으로 '경로잔치 야유회'가 산청 한방테마파크일원에서 있었다.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 바자회 | 10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네 번째 프로젝트,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 바자회' 행사가 있었다.



임직감사예배 | 10월 26일(토) 오후 2시 예루살렘채플에서는 임직감사예배(장로 취임 및 장립 7명, 집사장립 6명, 권사취임 7명)가 있었다. 예배 및 임직식, 축하 특송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새가족 만남의 날 | 10월 27일(주일) 오후 3시 갈릴리채플에서 '새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있었다. 이어진 오후예배와 친교의 식사 만찬으로 풍성한 환영회가 되었다.

범어 ‘창(窓)’

시대와 세대를 바라보는 범어인의 시선

그깃 공놀이

지름 약 7.4cm, 붉은색 실밥 108개, 무게 약 145g의 작은 가죽 공을 가지고 양팀 20명의 선수들이 하는 공놀이
에 2024년 올해 대구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울고
웃었다. 바로 국민스포츠 야구다.

1982년 대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팀인 명문 『삼성 라이온즈』가 창단하기 이전에 「대구상업고등학교(현, 대구상원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등 대구의 명문 고등학교 야구팀들의 수많은 전국대회 제패는 대구시민들에게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다.

많은 이들은 한국야구의 기원을 「YMCA야구단」이라는 영화 때문에 1905년 질레트 선교사가 황성기독청년회(현, YMCA)회원들에게 최초로 야구를 가르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

전 1897년에 대구로 오셔서 우리 범어교회를 세우신 아담스 선교사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대구에 가장 먼저 야구가 전해졌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대구는 실제적인 한국야구가 시작된 곳이다.



2011년 11월 부교역자들과 친선경기 후 기념사진

한국야구의 시조 아담스 선교사가 세우신 범어교회에 『범어데이비즈』 야구팀이 2009년 9월에 창단되어 2018년까지 운영되었다. 대구경북사회인야구협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회인 리그 가운데 「바이블리그」에 가입해서 매주 토요일 새벽 리그경기를 진행했고, 최고 성적으로 리그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야구팀이었다. 아쉽게 2018년을 끝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여러 번 재창단의 얘기가 오갔지만 팀원들 각자의 바쁜 일상들과 COVID-19 팬데믹으로 미뤄오다 드디어 2024년 다시 『뉴 범어데이비즈』의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

작은 공 하나를 던지고, 치고, 달리는 단순한 스포츠이지만 그 안에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어떤 스포츠에서도 볼 수 없는 ‘희생번트’와 ‘희생플라이’ 같은 희생정신과 혼자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한 번에 두 개의 아웃을 만드는 ‘더블 플레이’와 같은 협동작업 등 많은 것들이 야구 경기 안에 담겨 있다. 어쩌면 야구는 “그깃 공놀이”가 아니라 “남을 위한 나의 희생과 성도간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그 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진짜 스포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된다.

• 김보현 집사(예사모)

범어범어(泛魚凡語)

한 달 동안 예배당 곳곳에 흘렸던 말, 말, 말...

“우리의 달란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내려놓고 주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주일설교 중

“나는 너의 도움, 큰 상급이라 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양육학교 강의 중

“나중에 세상을 떠난 뒤, 누군가 제 유품을 정리할 때 고가의 제품이 나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누가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가지고 살다 가고 싶어요.” 어느 집사님과의 대화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황유찬 (황해균, 이현민)



조윤아 (조경진, 정혜진A)

■ 축하

- 10월 8일(화) : 신영근 전도사 강도사 인허식 (대구동신교회)
- 10월 14일(월) : 김태완 전도사 강도사 인허식 (부산 해운대제일교회)
- 10월 15일(화) : 최상용 전도사 강도사 인허식 (서울 강남 영동제일교회)
- 방성택 집사(대구음악협회장) : 2024 대구예술제 대구광역시장상
- 한희순 전도사 : 봉덕교회 전도사로 부임

■ 공연 | 독창회

- 10월 15일(화) 박재경 집사 : 아양아트센터 아양홀
대구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단목 : 범어교회 이지훈 목사)

■ 개원

- 김세영 집사(최선운 집사) : 마취통증의학과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1 9층
T. 053-431-8575

11월 교회 행사 안내

- 2일(토) 2025년 정책 당회(3층 아래오바고)
- 4일(월)~8일(금) 아브라함 중보 새벽기도회
- 14일(목) 수능 기도회
- 17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축제예배(오후예배)
- 24일(주일) 정기 당회
성탄 트리 점등식(오후예배 후)
- 29일(금) 목자모임 종강

11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2일(토) 소년부 제자훈련 아웃팅 : 대명 유수지, 사문진 나루터, 청라언덕, 계산성당, 대구제일교회 역사관, 스파크랜드
- 9일(토) 대구 수성주교 연합회 성경고사 : 대구 동성교회, 오후 1시
- 14일(목) 2024 수능 기도회 : 예루살렘채플
- 16일(토) 초등부 제자훈련 비전트립 : 대구제일교회
- 17일(주일)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 : 유치부, 영어예배부 참여
- 중등부 김지연 대표 초청 강의 (주제 : 성경적 성교육)

편집장 | 이창권

부편집장 | 허윤정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수민, 김정모, 김현성, 박용수
배지연, 서정주, 손명진, 신규식, 여경진, 이영선C
임병하, 조성희A, 최문자, 최현규

자문위원 | 박용수, 배지연, 임병하, 조성희A, 최문자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24년도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찬조 받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는 소속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주최: 친교위원회

일시 | 24년 11월 17일 오후예배시간(16시~17시30분)

장소 | 예루살렘 채플

참가 | 영어예배부, 유치부, 청년부, 베드로, 디모데, 바울,
예사모, 하사모, 성사모, 모세대학(총 10개 부서)

특별출연 | 쇼파르 색소폰 선교합주단

문의 | 친교위 총무 남경희 집사(010-4509-6165)